

V. 尖端 産業 動向

■ 일본 반도체 5社, 工場 新設 동결

昨年初부터의 반도체 市況 惡化로 일본 반도체 5社는 대폭적인 생산 조정을 계획하고 있음

○ 市況 惡化에 따른 生産 調整

- 일본 대형 반도체업체들은 반도체 市況 惡化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 및 공장신설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
- 토시바(東芝)는 총투자액 1300억 엔 규모의 이와테(岩手)공장의 新라인 가동을 99년 이후로 延期하였으며, 16메가 DRAM을 생산하던 일부 工場을 Logic IC 工場으로 전환할 방침
- 후지쯔(富士通)는 1000억 엔을 투입, 아이즈(會津)에 건설 예정이었던 新工場 착공을 無期 延期하기로 결정
- NEC, 미쓰비시(三陵)電機, 히다치(H立)製作所도 Logic IC용 최첨단 라인의 가동을 금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설비투자를 대폭 삭감할 계획
- 작년 초부터 시작된 메모리 市況 惡化는 이미 Logic IC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으며, 대폭적인 생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음

○ 主因은 16메가 DRAM 가격 하락

- 작년 1년간 16메가 DRAM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三星電子 등 한국 3社들도 30% 減産 措置를 취함
- 그러나 한국 3社들의 減産 措置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업체의 수익 구조는 매우 不安함
- 공장 가동률을 줄여 생산을 조정한 한국 3社들이 공장 라인의 減價償却을 고려하여 다시 増産할 가능성이 높음
- 반도체업계의 收益構造가 惡化되어, 各社는 설비투자를 더욱 줄여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음
- 적어도 2000년까지는 16메가 DRAM의 生産 過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- 中期的·構造的 供給 過剩感이 설비 투자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

(「日本經濟新聞」, 97. 3.16)

■ LCD 모니터, 노트북에서 데스크탑으로

LCD 모니터는 공간 이용과 전력 소비 및 교체 비용에서 CRT 모니터보다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

○ CRT 모니터에 대한 LCD 모니터의 장점

- LCD(Liquid Crystal Display)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이용 효율성이 높다는 것임
- 두께가 극히 얇다는 것 외에도, 완전 평면이라는 특징 때문에, 같은 크기의 CRT(Cathod Ray Tube) 모니터에 비해 더 넓은 가시 영역을 가지고 있음
- LCD 모니터의 크기와 같은 효과를 내는 CRT 모니터

LCD 모니터(인치)	10.4	13.8	15.1	16.1
CRT 모니터(인치)	12.0	15.0	17.0	19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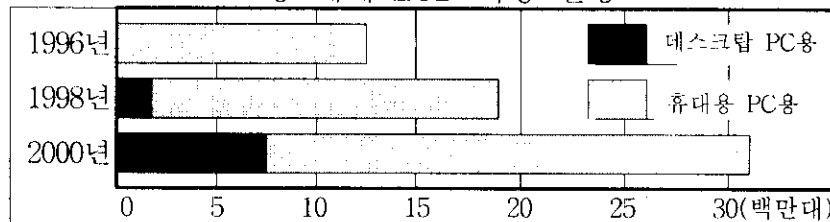
- 전력 소비가 CRT 모니터의 1/3 수준에 불과함
- 절전 기능 뿐 아니라, 인체에 유해한 각종 열과 전자파의 방출을 줄일 수 있음
- 장기간 이용시 교체 비용이 CRT보다 저렴할 수 있음
- 기능 저하시, CRT 모니터는 전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LCD 모니터는 일부 부품의 교체만으로 가능함

2000년경에는 PC에 사용되는 LCD 중 1/4 가량이 데스크탑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됨

○ LCD 모니터의 시장 전망

- 1996년도 PC용 LCD 모니터의 수요는 연간 1,300만 대 수준이며, 아직까지 데스크탑 PC에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
- 2000년에는 PC용 LCD 모니터 수요가 3,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며, 이 가운데 1/4 가량은 데스크탑 PC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됨
- 해상도 향상과 시야각의 확대, 그리고 가격 인하가 데스크탑용 LCD 모니터 수요를 촉진시킬 것임

<PC용 세계 LCD 시장 전망>



(BYTE, 1997. 3.)